

KIA 타이거즈, 마스크 착용하고 훈련...코로나19 예방 총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
야수·투수조 나눠 개막전 맞춰 몸상태 끌어올려
타인 접촉금지·동선분리 등 예방 매뉴얼 시행

30년만에 광주와 전남 함평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추운 날씨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1명의 감염자가 나오면 자칫 전체 훈련 중단과 함께 2021프로야구 시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수들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다.

KIA는 지난 1일부터 홈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동계훈련을 펼치고 있다.

3일째인 3일에도 야수조와 투수조로 나뉘어 실내와 운동장을 오가며 오는 4월3일 프로야구 개막전에 나서기 위해 몸상태를 끌어 올렸다.

KIA는 우선 동계훈련에 앞서 전 선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타인과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동선 분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코로나19 예방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

야외 훈련은 마스크 의무화에서 제외지만 일부 선수들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 한 채 훈련에 나섰다.

이와함께 모든 훈련장 입구에는 선수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발열장비와 손소독제가 비치됐다.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곧바로 별도의 공간에 분리조치 하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한 뒤 음성일 경우 훈련에 복귀 시킨다.

양성일 경우에는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한 뒤 결과에 따라 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선수들이 있는 공간은 철저하게 외부인과의 접촉이 차단됐다.

이동 동선에는 팬 등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가림막과 펜스, 경호 인력이 배치됐으며 식사도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고 의지도 서로 마주보지 않는 방식으로 배열됐다.

훈련 뒤 땀을 씻을 때에도 옆 선수와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칸 띄어 사용하기를 지키고 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이동할 때는 자가용과 부름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언론과의 접촉도 최소화 할 수 있게 출입구가 분리됐으며 2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KIA 관계자는 “올해 동계훈련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날씨와 함께 코로나19가 최대 변수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오선우 등 타자들이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다”며 “선수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즌을 치렀던 경험이 있어서 인지 스스로가 먼저 지킬려고 노력하

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선수들이 타인과의 만남

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민정기자

“좋은 소식 전하겠다” 류현진, 미국으로 출국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의 첫 시즌을 끝낸 류현진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021시즌 출발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류현진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토론토 이적 두 번째 해
지난해 12경기 5승2패
평균자책점 2.69 활약

통해 출국한다.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바로 플로리다로 이동해 스프링캠프에 대비하며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귀국한 류현진은 11월부터 2021시즌 준비를 위한 개인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는 제주도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류현진의 전담 트레이닝 코치를 맡은 장세홍 코치는 “스프링캠프와 시즌에 맞춰 피정을

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토론토 이적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12경기에 등판해 5승2패 평균자책점 2.69의 성적을 냈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에 올랐고, 메이저리그 최고 좌완에게 주어지는 워렌 스파나상도 차지했다.

2019년 말 4년, 8000만 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류현진을 영입한 토론토는 ‘에이스’ 류현진의 활약에 활짝 웃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서도 토론토가 류현진의 합류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호평을 보냈다.

이번 시즌에도 류현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 팀도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류현진을 통해 FA 효과를 맞은 토론토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FA 최대어로 꼽혔던 외야수 조지 스프링어를 품었고, 2019년 내셔널리그 세이브 1위에 올랐던 커비 에이츠도 영입했다. 또한 내야수 마커스 시미언, 투수 스티븐 마츠 등도 데려왔다.

마운드에서 류현진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토론토는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 류현진도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류현진은 소속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힘내실 수 있도록 좋은 소식으로 응원에 보답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인센티브만 14억’ 차우찬 어깨에 달렸다

LG와 2년 20억원에 계약
연봉 3억·인센티브 연 7억

좌완 차우찬(34)이 LG 트윈스에 남는다.

LG는 “자유계약선수(FA) 차우찬과 계약기간 2년, 총액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계약 세부 내용은 연봉 3억원, 인센티브 연 7억원이다.

차우찬은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2016시즌을 마친 뒤에는 첫 FA 자격을 얻고 LG와 4년 95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었다.

LG 이적 후 4시즌 동안 40승30패 평균자책점 4.62의 성적을 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승리를 올리며 토종 에이스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계약 마지막 시즌이었던 지난해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어게 통종으로 8월 중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후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



로 시즌을 마쳤다. 이번 겨울에도 여전히 어깨 재활에 매진 중이다.

연봉보다 인센티브의 규모가 더 큰 계약을 맺은 만큼 차우찬은 확실한 실력을 보여줘야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일단은 부상을 털고 일어서야 한다. 결국 그의 어깨에 달린 셈이다.

차우찬은 “계약이 늦어지게 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캠프 합류가 조금 늦어진 만큼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 걱정과 응원에 꼭 좋은 활약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한 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과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여전히 성장하는 이정후
이번엔 클러치 히터 목표

만족은 없다. 입단 첫 해부터 ‘타격 천재’로 인정받은 이정후(23)는 여전히 성장을 꿈꾼다. 이번엔 클러치 히터로의 변신을 예고했다.

이정후는 2017년 1차 지명으로 넥센(현 키움) 유니폼을 입은 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데뷔 첫 시즌이었던 2017년 179안타로 KBO리그 신인 최다 안타 신기록을 썼고, 2019년엔 193안타를 때려 최다 안타 3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15개의 타구를 밖으로 날리며 장타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이전까지 한 시즌 최다 홈런이 6개(2018·2019년)였던 이정후의 변신이었다. 2019년 31개였던 2루타도 지난해는 49개로 늘었다.

그래도 이정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정후는 “지난해 중반까진 좋았는데 후반부터 안 좋아졌다. 좋았던 부분을 한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즌 준비에 한창인 이정후는 “몸을 만들 때도 단기간에 바짝 올리는 것보다 장기레이스에 맞게 해야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 시즌을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루틴이 생겨서 안 좋을 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성적이 요동치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日, 긴급사태 연장에도 도쿄올림픽 개최 강조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하면서도 7월 도쿄올림픽 개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상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취소 선택지는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사태 선언 연장과 관련 “어떻게 해서든 감염 확산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와 도쿄올림픽 개최 실현이 목표인 스가 총리에게 긴

박·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도 같은 날 자민당 스포츠대책 추진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론이 올림픽을 어떻게 느끼는지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리들은 코로나가 어떻게 반드시 해낸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개최 의욕을 보였다.

조직위 간부도 마이니치에 “상당한 일이 아닌 한 중지(취소)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무관객이라면 준비가 줄어 판단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

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올해 여름 개최 지지율은 20%에 그치고 있다. 외신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문점을 분석하거나 취소 결정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게다가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와 관련 스태프들의 입국을 위한 입국특별조치까지 전면 중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 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의료 인력 1만 명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신경을 쓰고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내로 모리 회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과 4차 회의를 열어 개최 추진을 협의할 생각이다.

연장된 긴급사태 선언 기한은 3월 7일까지다. IOC는 이날부터 6일 간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결정한 것도 성화 봉송 릴레이를 시작하기 전인 이를 전인 이 시기였다.

오는 4월 이후에는 올림픽 경기장 운영을 확인하는 테스트 대회도 재개하는 등 최종 준비에 돌입한다. 따라서 최종 준비 전 ‘중요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뉴스

홍명보호 ‘개봉박두’...클럽월드컵 첫 선

오늘 오후 울산 vs 티그레스 격돌...감독 데뷔전

‘아시아 챔피언’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2020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서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다. 홍명보호 감독의 공식 데뷔 무대다.

울산은 4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카타르 알 라이안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인 티그레스 UANL(멕시코)과 클럽월드컵 첫 경기를 치른다.

‘오세아니아 챔피언’ 오클랜드시티가 코로나19로 대회 참가를 포기하면서 울산, 티그레스, 파우메이라스(브라질), 알 아흘리(이집트), 바이에른 뮌헨(독일), 알 두하일(카타르) 등 6팀이 경쟁한다.

2012년 이후 8년 만에 클럽월드컵에 참가하는 울산이 첫 경기에서 티그레스를 이기면 4강에서 ‘남미 챔피언’ 파우메이라스와 8일 오전 3시 알 라이안의 에두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만난다.

지난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뒤 김도훈 감독과 작별한 울산은 홍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주니오(브라질), 이근호(대구), 신진호(포항), 박주호, 정동호(이상 수원 FC) 등 주요 선수들이 대거 떠나고 이도준, 김지현 등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스쿼드를 채웠다.

뉴스